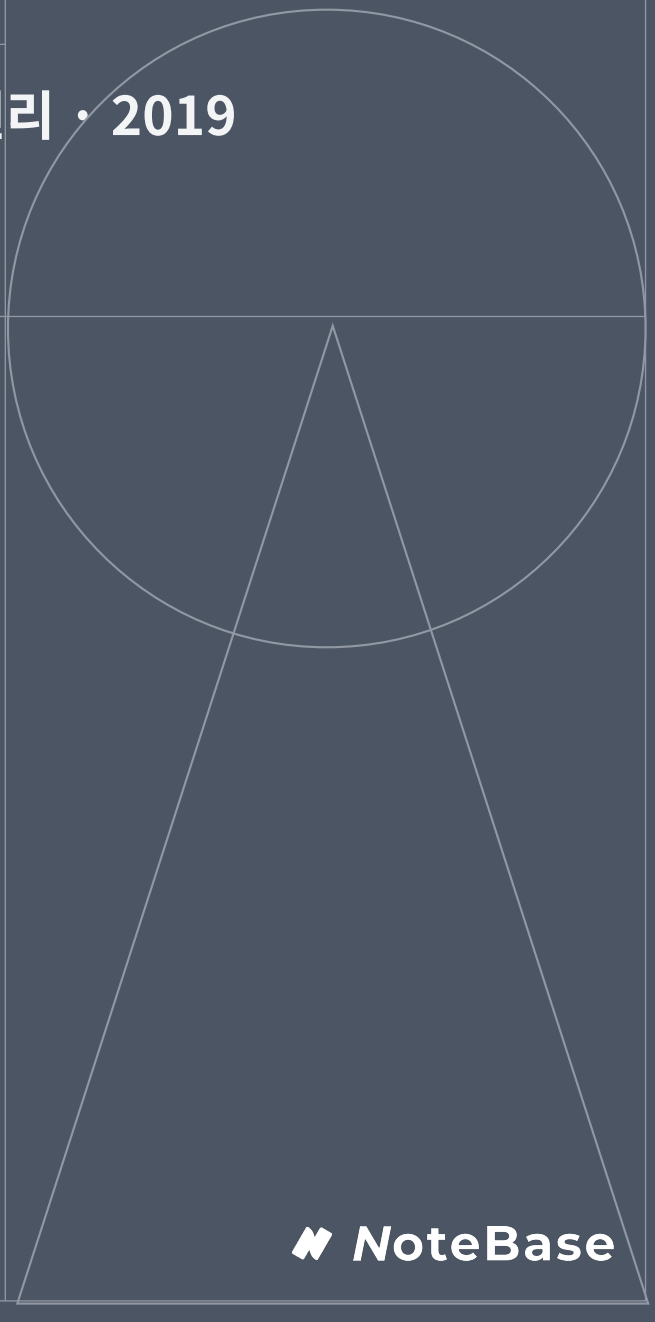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9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9

문 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으로 일관성과 동일하며 통일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③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때,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④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비교가능성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목표이고, 일관성은 같은 항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그 목표의 달성을 돕는 수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투입자료로 쓰이면 예측가치가 있고,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확인가치가 있다. **두 가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둘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

② X: 비교가능성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일관성은 한 기업이 기간별로, 또는 여러 기업이 같은 기간에 같은 항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관성과 동일하며'는 '일관성과 관련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로 고쳐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달성을 돕는 수단**이다. 통일성과 다르다는 부분은 맞다.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므로, 서로 다른 항목을 무조건 같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③ O: 유용한 재무정보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그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의 요건은 **완전성·중립성·오류 없음**이다. 완전성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고, 중립성은 정보의 선택과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오류 없음은 현상의 서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는 뜻이다. 이는 추정금액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적시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점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특성이다. 정보 제공이 늦어져 의사결정이 끝나 버리면 그 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오래된 정보일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다만 추세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과거 정보처럼 시간이 지나도 유용한 경우는 있다.

NoteBase

문 2. 다음 사건에서 발생시점에 분개하여야 할 회계거래는?

① 제품포장을 위해 계약직 직원을 일당 ₩100,000의 조건으로 매월 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하였다.

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장부가액 ₩2,000,000)이 전부 소실되었다.

③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100개를 개당 ₩1,000의 조건으로 월말까지 납품해 달라는 주문서를 받았다.

④ 다음 달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월 말 ₩1,000,000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건물주와 체결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면 **자산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하므로, 현금 지급이나 상대방과의 거래가 없어도 화재 발생시점에 분개한다.

공통 해설

회계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고 그 변동을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계약서나 주문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록할 경제적 변동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화재로 장부가액 2,000,000원의 재고자산이 전부 소실되면 재고자산이 그만큼 감소하고 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점에 차변에 재해손실 2,000,000원, 대변에 재고자산 2,000,000원을 기록한다. **외부 상대방과의 교환이 없는 사건**도 자산 감소와 손실을 발생시키면 회계거래에 해당한다.

직원 채용은 아직 근로를 제공받기 전의 고용계약이고, 주문서 수령은 제품을 인도하기 전의 주문 단계이며, 다음 달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도 아직 사용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들은 제시된 시점에 **계약이나 주문만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분개하지 않는다. 일당이나 제품 단가, 월 임차료가 정해져 있어도 그 약정만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미리 기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2018년 12월 31일에 (주)한국에서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말 재무상태표상 부채에 포함할 금액은?

◯ 제품보증에 대한 충당부채 ₩1,000을 설정하였다.
◯ 사무실을 임대하고 12개월분 임대료 ₩2,000을 미리 받았다.
◯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1,000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공장 확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가 ₩100, 주당 발행가 ₩200)를 발행하였다.

① ₩ 2,000
② ₩ 3,000
③ ₩ 4,000
④ ₩ 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리 받은 임대료는 아직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는 **선수수익인 부채**이고, 보통주 발행대금은 **자본**이다. 제품보증충당부채·선수임대료·외상매입금을 합한 부채 금액은 4,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제품보증충당부채: 제품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지출할 금액에 대해 설정한 **충당부채 1,000원**을 포함한다.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이미 충당부채로 인식한 의무이므로 부채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 12월 31일에 미리 받은 12개월분 임대료 2,000원은 앞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금을 받았더라도 바로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수임대료(선수수익) 2,000원**을 부채로 포함한다. 이후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만큼 수익으로 전환한다.

원재료 외상구입: 원재료 1,000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재료라는 자산과 함께 **외상매입금 1,000원**이라는 부채가 발생한다. 원재료가 자산이라는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의무까지 제외해서는 안 된다.

보통주 발행: 받은 현금은 10주 × 200원 = 2,000원이다. 이 중 액면금액인 10주 × 100원 = 1,000원은 자본금, 액면초과액인 10주 × (200원 − 100원) = 1,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두 금액 모두 **주주의 출자에 따른 자본**이므로 부채 합계에서 제외한다.

부채 합계는 제품보증충당부채 1,000원 + 선수임대료 2,000원 + 외상매입금 1,000원 = 4,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의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수정분개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월할 계산한다)

구분	거래
㉠	12월 1일에 대여금의 향후 3개월분 이자수익 ₩9,000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전액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모품 ₩5,000을 현금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다. 기말 실사 결과 소모품 재고는 ₩2,000이었다.
㉢	12월 1일에 향후 3개월분 이자비용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12월 1일에 비품 ₩6,000을 구입하였다.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① ㉠ 차변: 이자수익 ₩3,000
대변: 선수수익 ₩3,000

② ㉡ 차변: 소모품비 ₩3,000
대변: 소모품 ₩3,000

③ ㉢ 차변: 선급비용 ₩2,000
대변: 이자비용 ₩2,000

④ ㉣ 차변: 감가상각비 ₩1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은 미리 받은 이자 중 12월에 발생한 3,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선수수익을 차변**에, **이자수익을 대변**에 기록해야 하며, 제시된 분개는 차변과 대변이 뒤바뀌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12월 1일에 받은 3개월분 이자 9,000원 전액을 선수수익으로 기록한 거래이다. 선수수익은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는 부채이다. 12월 말까지 1개월이 지났으므로 당기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9,000 \times \frac{1}{3} = 3,000$원이다. 이 금액만큼 **선수수익을 줄이고 이자수익을 늘려야** 하므로, 수정분개는 차변 선수수익 3,000원, 대변 이자수익 3,000원이다. 수정 후 선수수익 6,000원은 다음 기간의 2개월분에 해당한다.

② O: ㉡은 구입액 5,000원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 거래이다. 기말에 남아 있는 소모품이 2,000원이므로, 당기에 사용한 금액은 5,000 − 2,000 = 3,000원이다.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변에 소모품비 3,000원, 대변에 소모품 3,000원을 기록한다. 그 결과 소모품 장부금액은 실제 재고인 2,000원과 일치한다.

③ O: ㉢은 12월 1일에 지급한 3개월분 이자 3,000원을 모두 이자비용으로 기록한 거래이다. 12월 말까지 발생한 1개월분 비용은 $3,000 \times \frac{1}{3} = 1,000$원이다. 나머지 3,000 − 1,000 = 2,000원은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급비용**이므로, 차변 선급비용 2,000원, 대변 이자비용 2,000원으로 수정한다. 이 분개로 이자비용은 1,000원만 남고, 다음 기간에 비용이 될 2,000원은 자산으로 표시된다.

④ O: ㉣은 12월 1일 구입한 비품 6,000원을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거래이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배분한다.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6,000}{5} = 1,200$원이고, **당기에 경과한 1개월분만** 인식하므로 당기 감가상각비는 $1,200 \times \frac{1}{12} = 100$원이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에 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100원을 기록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회계연도 중에는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기말수정분개를 통해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주)한국의 기말 수정후시산표상 차변(또는 대변)의 합계금액은 ₩1,025,000이다. 기말수정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수정전시산표상 차변(또는 대변)의 합계금액은?

◯ 소모품 기말재고액 ₩30,000 ◯ 기간 미경과 보험료 ₩55,000
◯ 미수수익 미계상액 ₩15,000 ◯ 미지급이자 미계상액 ₩10,000

① ₩915,000
② ₩965,000
③ ₩1,000,000
④ ₩1,02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수정은 시산표 합계를 바꾸지 않고, **새로 인식하는 미수수익과 미지급이자**만 차변·대변 합계를 각각 총 25,000원 늘린다. 수정전 합계는 1,025,000 − 25,000 = 1,0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시산표는 각 계정의 잔액을 차변과 대변에 모은 것이다. 현금주의로 처리한 비용을 발생주의에 맞게 수정할 때, **차변 잔액끼리 금액을 옮기는지, 차변·대변 잔액을 함께 늘리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소모품 기말재고액 30,000원: 현금주의에서는 구입 시 소모품비로 처리했으나, 기말에 남은 소모품은 아직 소비하지 않은 자산이다. 차변에 소모품 30,000원, 대변에 소모품비 30,000원을 기록한다. 자산의 차변 잔액은 늘고 비용의 차변 잔액은 같은 금액만큼 줄어 **차변 합계는 변하지 않는다**. 대변 잔액에도 변화가 없다.

기간 미경과 보험료 55,000원: 지급 시 보험료로 처리한 금액 중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돌린다. 차변에 선급보험료 55,000원, 대변에 보험료 55,000원을 기록한다. **자산 증가와 비용 감소가 차변 안에서 상쇄**되므로 차변·대변 합계는 변하지 않는다.

미수수익 미계상액 15,000원: 이미 발생했지만 현금을 받지 않아 기록하지 않은 수익이다. 차변에 미수수익 15,000원, 대변에 수익 15,000원을 기록한다. 자산의 차변 잔액과 수익의 대변 잔액이 새로 늘어 **각 합계가 15,000원씩 증가**한다.

미지급이자 미계상액 10,000원: 이미 발생했지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록하지 않은 이자비용이다. 차변에 이자비용 10,000원, 대변에 미지급이자 10,000원을 기록한다. 비용의 차변 잔액과 부채의 대변 잔액이 새로 늘어 **각 합계가 10,000원씩 증가**한다.

수정전 합계 역산: 수정으로 차변·대변 합계가 각각 늘어난 금액은 15,000 + 10,000 = 25,000원이다. 따라서 수정전 차변 또는 대변 합계는 1,025,000 − 25,000 = 1,0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주)한국의 2018년 1월 1일 자본계정의 내역이다.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주)한국의 2018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

자본:	
자본금 (보통주, 주당 액면가 ₩1,000)	₩3,000,000
자본잉여금	₩1,500,000
이익잉여금	₩5,500,000
자본 총계	₩10,000,000

◯ 4월 1일: 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 1,000주(주당 액면가 ₩1,000)를 주당 ₩2,000에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이때 신주발행비 ₩500,000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5월 1일: (주)한국이 발행한 보통주 100주를 주당 ₩3,000에 매입하였다.
◯ 11월 1일: 자기주식 전량을 주당 ₩2,000에 외부 매각하였다.
◯ (주)한국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1,000,000이며, 2019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1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① ₩12,400,000
② ₩12,500,000
③ ₩12,800,000
④ ₩12,9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비를 뺀 **순납입액만큼 자본을 증가**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은 합계 100,000원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당기순이익 1,000,000원을 더하면 기말 자본 총계는 **12,400,000원**이며, 다음 해에 결의한 주식배당은 2018년 말 자본에 반영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 자본: 제시된 자본계정에서 자본금 3,000,000원, 자본잉여금 1,500,000원, 이익잉여금 5,500,000원의 합계는 10,000,000원이다. 여기에 각 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감을 반영하여 기말 자본 총계를 구한다.

4월 1일 유상증자: 주식 발행으로 납입받은 금액은 1,000주 × 2,000원 = 2,000,000원이다. 이 중 액면금액 1,000,000원은 자본금, 액면초과액 1,0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신주발행비 5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므로, 자본 총계의 순증가액은 2,000,000원 − 500,000원 = 1,500,000원이다.

5월 1일 자기주식 취득: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인 것이므로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자기주식 거래이다.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 항목**이므로, 취득금액 100주 × 3,000원 = 300,000원만큼 자본 총계가 감소한다.

11월 1일 자기주식 처분: 처분대금은 100주 × 2,000원 = 200,000원이다. 취득원가 300,000원의 자기주식 차감 항목은 없어지지만, 원가보다 적게 받은 차액 100,000원은 자본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처분 시 자본 총계는 3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증가한다. 취득과 처분을 합하면 자본 총계는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감소한다. 이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당기순이익에서 다시 빼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2018년 당기순이익 1,000,000원은 이익잉여금에 가산되므로 자본 총계를 같은 금액만큼 증가시킨다.

주식배당: 보통주 1주당 0.1주의 배당은 **2019년 3월 말에 결의**하였으므로 2018년 말 자본 총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주식배당 자체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자본 총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기말 자본 총계: 기초 10,000,000원에 유상증자 순증가액 1,500,000원을 더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순감소액 100,000원을 뺀 뒤 당기순이익 1,000,000원을 더한다. 따라서 2018년 말 자본 총계는 12,40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1,000, 액면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3년,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주)한국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982이다. (주)한국이 2018년 6월 30일 동 사채를 ₩1,020에 조기상환하였다면, 이때의 사채상환손실은? (단, 계산은 월할 계산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11

② ₩20

③ ₩29

④ ₩31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조기상환손실은 **상환가액과 상환일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상반기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9원을 반영하면 장부금액은 991원이므로, 상환가액 1,020원과의 차이인 29원이 손실이다.

계산 과정

2017년 말 장부금액 982원에서 출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조기상환일인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을 월할 계산한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액면가액에 액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약정이자를 계산한다.

1. 상반기 이자비용: $982 \times 10\% \times \frac{6}{12} = 49.1$원이므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9원이다. 이는 사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이자비용**이다.

2. 상반기 약정이자: $1{,}000 \times 8\% \times \frac{6}{12} = 40$원이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지만, 조기상환일까지 경과한 6개월분의 약정이자를 계산해야 이자비용 중 할인발행차금 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다.

3. 할인발행차금 상각과 장부금액: 이자비용 49원 중 약정이자 40원을 초과하는 9원이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할인발행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상각하면 **사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상환일 장부금액은 982 + 9 = 991원이다.

4.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없애기 위해 지급하는 상환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한다. 상환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는 이자 항목으로 구분하므로 상환손실에 더하지 않는다. 사채상환손실은 1,020 − 991 = 29원으로, ③의 29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18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를 정상적인 감모로 간주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이 2018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자산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0이다)

◯ 기초재고액 ₩10,000 ◯ 재고자산 당기순매입액 ₩100,000
◯ 기말 재고자산(장부수량) 100개 ◯ 장부상 취득단가 ₩500/개
◯ 기말 재고자산(실사수량) 90개 ◯ 추정판매가액 ₩450/개
◯ 현행대체원가 ₩380/개 ◯ 추정판매수수료 ₩50/개

① ₩60,000
② ₩71,000
③ ₩75,000
④ ₩79,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장부상 매출원가 60,000원에 **정상 감모손실 2,000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 9,000원**을 더하면 매출원가는 71,000원이다. 비정상 감모손실 3,000원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장부상 매출원가: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재고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기록한다. 따라서 감모와 평가손실을 반영하기 전 매출원가는 판매가능재고액에서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빼서 구한다. 판매가능재고액은 10,000 + 100,000 = 110,000원이고, 장부상 기말재고액은 100개 × 500원/개 = 50,000원이다. 장부상 매출원가는 110,000 − 50,000 = 60,000원이다.

2. 재고자산감모손실: 감모는 장부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것이다. 부족 수량은 100 − 90 = 10개이므로 감모손실은 10개 × 500원/개 = 5,000원이다. 이 중 **정상 감모 40%만 매출원가에 포함**하므로 가산할 금액은 5,000원 × 40% = 2,000원이다. 나머지 비정상 감모손실 3,000원은 매출원가와 구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자료에서 개당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액에서 추정판매수수료를 뺀 450 − 50 = 400원이며, **현행대체원가 380원이 아니다**. 개당 취득원가 500원보다 100원 낮으므로, 감모 후 실제 남아 있는 90개에 대해 90개 × 100원/개 = 9,000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0원이므로 기존 충당금과 상계할 금액 없이 9,000원 전액이 당기 평가손실이다. 평가 후 기말재고액은 90개 × 400원/개 = 36,000원이다.

4. 보고할 매출원가: 문제에서 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장부상 매출원가에 두 손실을 가산한다. 매출원가는 60,000 + 2,000 + 9,000 = 71,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대한으로부터 장부가액이 각각 ₩50,000과 ₩100,000인 건물과 토지를 ₩3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즉시 (주)한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 ₩20,000을 지출하였고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① ₩200,000

② ₩220,000

③ ₩300,000

④ ₩32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취득 당시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면, 건물과 토지의 일괄 취득대가와 철거비를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 취득원가는 300,000원 + 20,000원 = 320,000원이다.

계산 과정

일괄 취득대가: (주)한국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신축할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일괄 취득대가 300,000원 전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주)대한의 건물 장부가액 50,000원과 토지 장부가액 100,000원은 매도자의 회계상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대가를 나누거나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철거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 지출한 20,000원은 토지를 신축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원가이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취득원가: 일괄 취득대가에 철거비를 더하면 300,000원 + 20,000원 = 320,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한국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 말 수정후시산표 일부>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계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추가자료>를 고려하여 기계장치의 화재보험료 1년 총액과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는? (단, ㈜한국은 매월 말 결산을 수행한다)

<3월 말 수정후시산표 일부>
◯ 선급보험료: ₩450,000
◯ 기계장치: ₩6,000,000(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추가자료>
◯ 매년 1월 1일 기계장치에 대한 화재보험을 갱신하며, 보험료 12개월분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① 화재보험료 1년 총액: ₩450,000,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 12개월
② 화재보험료 1년 총액: ₩450,000,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 24개월
③ 화재보험료 1년 총액: ₩600,000,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 36개월
④ 화재보험료 1년 총액: ₩600,000,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 60개월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3월 말 선급보험료 450,000원은 **남은 9개월분**이므로 1년 보험료는 600,000원이다. 정액법에 따른 월 감가상각비는 100,000원이며, 아직 상각하지 않은 3,600,000원에 해당하는 **잔존내용연수는 36개월**이다.

계산 과정

화재보험료 1년 총액: 매년 1월 1일에 12개월분을 미리 지급하고 매월 말 결산하므로, 3월 말에는 1~3월의 3개월분이 보험료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수정후시산표의 선급보험료 450,000원은 **4~12월의 남은 9개월분**이다. 따라서 월 보험료는 $\frac{450,000}{9} = 50,000$원이고, 1년 총액은 $50,000 \times 12 = 600,000$원이다.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취득원가는 6,000,000원, 잔존가치는 0원,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6,000,000-0}{5} = 1,200,000$원이다. 월 감가상각비는 $\frac{1,200,000}{12} = 100,000$원이다. 3월 말 장부금액은 $6,000,000 - 2,400,000 = 3,600,000$원이며,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할 금액**이다. 따라서 잔존내용연수는 $\frac{3,600,000}{100,000} = 36$개월이다.

화재보험료 1년 총액 600,000원과 잔존내용연수 36개월의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를 수반하더라도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면 부채가 아니다.

②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③ 부채에 있어 의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④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고 부채의 나머지 정의를 충족하면,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부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부채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는지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이다. **금액의 추정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면 부채이다. 예를 들어 이미 판매한 제품의 보증수리에 들어갈 금액은 추정해야 하지만, 그 지급의무는 부채에 해당할 수 있다.

② O: 의무는 계약이나 법규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실무나 관행**에서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관행적으로 무상수리해 주는 기업이라면,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예상되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부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O: 미래에 자산을 사겠다는 **단순한 의사결정만으로 현재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도받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할 때 의무가 발생한다. 취소불능약정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약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므로 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④ O: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는 법률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품을 인도받은 기업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NoteBase

문 12. 수익인식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인식 5단계 순서는 '수행의무 식별 → 계약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행의무별 수익인식'이다.

②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③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이때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④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거나,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만 있으면 계약을 식별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계약 개시시점에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이렇게 나눈 수행의무가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단위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익인식의 5단계는 **계약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행의무별 수익인식 순서이다. 먼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 뒤 그 계약에서 기업이 무엇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는지 구분한다. 선지는 첫 두 단계의 순서를 바꾸었다.

② O: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이러한 약속을 각각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려면 고객이 그 자체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전 약속이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 여러 재화나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별개의 수행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다만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그 금액은 기업 자신의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고객에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X: 계약의 승인과 의무 이행 확약 또는 당사자 권리의 식별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할 계약은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승인 및 의무 이행 확약,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한 각 당사자 권리의 식별 가능성, 지급조건의 식별 가능성, 계약의 상업적 실질,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상업적 실질은 계약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은 고객이 지급기일에 지급할 능력과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NoteBase

문 13. 비용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시한다.

②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어 적용이 간단하고 배분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데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④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을 포함하여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추가 공시의 방향을 뒤바꾸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비용 등 **성격별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기능별 금액만으로는 각 성격의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용을 합계로만 표시하면 발생 빈도나 손익의 발생가능성·예측가능성이 서로 다른 항목이 섞인다. 비용을 세분류하면 **재무성과 구성요소의 서로 다른 특성**이 드러나므로 이용자가 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성격별 분류는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비용처럼 **비용 자체의 종류에 따라** 묶는 방법이다. 이를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 등 기능별 항목으로 다시 나누어 배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용이 간단하고, 그 배분에 따르는 주관적 판단을 피할 수 있다.

③ O: 기능별 분류는 비용을 매출원가·판매활동비·관리활동비 등 **기업 내 수행 기능에 따라** 묶는다. 각 활동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보여 주어 성격별 분류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여러 활동에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을 기능별로 나누려면 배분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자의적 배분과 상당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④ X: 추가 공시의 대상과 내용이 서로 바뀌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성격별 정보를 추가 공시**하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능별로 제시한 매출원가와 관리비에는 각각 감가상각비가 포함될 수 있어, 기능별 합계만으로는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을 알기 어렵다. 성격별 정보를 보충하면 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당기순이익은?

◯ 기초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 기말자산은 기초자산에 비해 ₩500,000 증가하였고, 기말부채는 기초부채에 비해 ₩200,000 증가하였다.
◯ 당기 중 유상증자 ₩100,000이 있었다.
◯ 당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 당기 중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20,000을 인식하였다. (단, 전기 재평가손실은 없다)

① ₩180,000
② ₩190,000
③ ₩200,000
④ ₩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본 증가액 300,000원 중 **유상증자 100,000원은 포괄손익에서 제외**한다. 남은 포괄이익 200,000원에서 기타포괄이익 순액 10,000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19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자본 증가액: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 자본 증가액은 자산 증가액에서 부채 증가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자본은 500,000 − 200,000 = 300,000원 증가하였다.

2. 당기 포괄손익: 포괄손익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 변동이다. 유상증자 100,000원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손익이 아닌 자본거래**이다. 주어진 거래에서 이를 제외한 300,000 − 100,000 = 200,000원이 당기 포괄이익이다.

3. 기타포괄손익: 기초자본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없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실 10,000원은 기타포괄손실이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20,000원도 **전기 재평가손실이 없으므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 기타포괄손익은 −10,000 + 20,000 = 10,000원이다.

4. 당기순이익: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이다. 따라서 당기 포괄이익에서 기타포괄이익 순액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200,000 − 10,000 = 19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본> 및 <추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재무상태표상 자본>

과목	기초	기말
자본금	₩300,000	₩350,000
자본잉여금	₩100,000	₩132,000
이익잉여금	₩20,000	₩25,000
자기주식	(₩10,000)	–
자본 총계	₩410,000	₩507,000

<추가자료>

◯ 당기 중 유상증자(주식의 총 발행가액 ₩80,000, 총 액면금액 ₩50,000)가 있었다.

◯ 기초 보유 자기주식을 기중에 전량 ₩12,000에 처분하였다.

◯ 당기순이익은 ₩15,000이며 배당금 지급 이외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는 없었다. (단,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① ₩32,000

② ₩52,000

③ ₩80,000

④ ₩82,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상증자와 자기주식 처분으로 들어온 92,000원에서,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구한 **배당금 지급액 10,000원**을 차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82,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유상증자: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액은 재무활동 현금유입이다. 자본금 증가액 50,000원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이며, 실제 현금유입액은 **총 발행가액 80,000원**이다. 차액 3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에 반영된다.

자기주식 처분: 기초 자기주식 10,000원은 보유 주식의 장부금액이다. 이를 전량 처분하여 실제 받은 **12,000원**을 재무활동 현금유입으로 계산한다.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2,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잉여금에 반영되며, 이미 처분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금유입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배당금 지급: 이익잉여금은 기초 20,000원에 당기순이익 15,000원이 더해지고 배당금 지급액이 차감되어 기말 25,000원이 된다. 다른 변동이 없으므로 배당금 지급액은 20,000 + 15,000 − 25,000 = 10,000원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이를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분류한다. 당기순이익 15,000원 자체를 재무활동 현금유입으로 더하지 않는다.

순현금흐름: 유상증자 유입액과 자기주식 처분 유입액을 더하고 배당금 지급액을 뺀다. 80,000 + 12,000 − 10,000 = 82,000원이므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④의 82,000원이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이 2018년 1월 초 건물을 취득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을 때, 다음 자료의 거래가 (주)한국의 2018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월할 계산한다)

◯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취득가액은 ₩2,000,000이며, 이와 별도로 취득세 ₩100,000을 납부하였다.
◯ 2018년 6월 말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1,0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내용연수가 2년 증가하였다.
◯ 2018년 12월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00이다.

① ₩900,000
② ₩1,000,000
③ ₩1,900,000
④ ₩2,0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취득세와 리모델링 지출을 포함한 장부금액은 3,100,000원이므로, 기말 공정가치 4,000,000원과의 차이인 900,000원만큼 당기이익이 증가한다.

계산 과정

적용 모형: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의 2년 증가 및 정액법·월할 계산 조건으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최초 취득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최초 장부금액은 2,000,000 + 100,000 = 2,100,000원이며, 취득세를 당기비용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지출: 내용연수를 늘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므로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6월 말 지출액 1,000,000원을 더하면 기말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금액은 2,100,000 + 1,000,000 = 3,100,000원이다.

기말 평가와 손익: 평가 전 장부금액을 기말 공정가치 4,000,000원으로 조정하며, 그 증가액은 **당기손익인 투자부동산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평가이익은 4,000,000 − 3,100,000 = 900,000원이다. 따라서 제시된 거래는 2018년 당기이익을 900,000원 증가시키며, 이는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 × 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액면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3년)의 사채를 ₩950,258에 발행하였다. (주)민국은 이 사채를 발행과 동시에 전액 매입하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거래비용은 없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34,716이다.

② (주)민국이 20×2년 1월 1일에 현금 ₩970,000에 동 사채 전부를 처분할 경우 금융자산 처분이익 ₩19,742을 인식한다.

③ (주)민국은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이자수익 중 ₩15,026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주)한국이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이자비용은 ₩95,026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처분손익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처분일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년 말 상각후원가는 965,284원이므로, 970,000원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은 4,716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20×1년의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은 950,258원 × 10% = 95,025.8원으로, 원 단위 반올림 시 95,026원이다. 실제 지급·수취하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한 1,000,000원 × 8% = 80,00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인 15,026원은 할인액의 상각액이며, 발행자의 사채 장부금액과 보유자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을 모두 증가시킨다. 따라서 20×1년 말 장부금액은 950,258원 + 15,026원 = 965,284원이다.

① O: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사채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최초 할인발행차금은 1,000,000원 − 950,258원 = 49,742원이며, 첫해에 15,026원을 상각하므로 **미상각 잔액은 34,716원**이다. 이는 액면금액 1,000,000원과 기말 장부금액 965,284원의 차이와 같다.

② X: 20×2년 1월 1일에는 전날 이자수취와 할인액 상각을 반영한 장부금액 965,284원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970,000원 − 965,284원 = **4,716원**이다. 선지의 19,742원은 처분대금에서 최초 취득원가 950,258원을 뺀 금액으로, 첫해의 할인액 상각에 따른 장부금액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③ O: 민국의 이자수익 95,026원 중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80,000원이다. 나머지 15,026원은 할인 취득한 금융자산이 만기 액면금액에 가까워지도록 **금융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현금 80,000원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5,026원을 차변에, 이자수익 95,026원을 대변에 인식한다.

④ O: 한국의 이자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한 80,000원에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5,026원을 더한 95,026원이다. 사채를 할인발행하였으므로 **이자비용에는 할인액의 상각액도 포함**되며, 현금이자 지급액만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2018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다음의 현금 및 예금 등의 자료를 이용할 때, 2018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은?

◯ 현금 ₩ 30,000
◯ 우편환증서 ₩ 100,000
◯ 우표와 수입인지 ₩ 20,000
◯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 20,000
◯ 보통예금(사용제한 없음) ₩ 10,000
◯ 정기적금(만기 2022년 1월 31일) ₩ 200,000
◯ 당좌차월 ₩ 50,000
◯ 당좌개설보증금 ₩ 80,000
◯ 환매조건부 채권 ₩ 300,000
(2018년 12월 1일 취득, 만기 2019년 1월 31일)

① ₩ 360,000
② ₩ 440,000
③ ₩ 460,000
④ ₩ 66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환매조건부 채권은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2개월**이므로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현금·통화대용증권·보통예금 합계 160,000원에 이를 더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금액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구분하여 합산한다. 현금에는 통화,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이 포함된다.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금 및 요구불예금: 현금 30,000원, 통화대용증권인 우편환증서 100,000원과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20,000원, 사용제한 없는 보통예금 10,000원을 포함한다. 합계는 30,000 + 100,000 + 20,000 + 10,000 = 160,000원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2018년 12월 1일에 취득하여 2019년 1월 31일에 만기가 되므로 취득 당시 만기는 약 2개월이다. 따라서 300,000원을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만기 기준은 **결산일부터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취득일부터의 기간**이다.

우표와 수입인지: 20,000원은 우편요금이나 수수료 등의 납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통화나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정기적금: 만기가 2022년 1월 31일이므로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만기까지 3년 이상 남아 있다. 요구불예금도 아니고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인 단기 투자자산도 아니므로 200,000원을 제외한다.

당좌차월: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50,000원은 은행에서 빌린 금액이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로 보고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좌개설보증금: 80,000원은 당좌거래의 보증을 위해 맡긴 금액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 160,000 + 300,000 = 460,000원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매출액	₩60,000	○ 임대료수익	₩1,000
○ 매출원가	₩20,000	○ 미지급급여	₩500
○ 급여	₩10,000	○ 선급비용	₩3,000
○ 감가상각비	₩6,000	○ 선수수익	₩6,000
○ 대손상각비	₩2,000	○ 미지급 배당금	₩1,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5,000		

① ₩48,000
② ₩50,000
③ ₩52,000
④ ₩53,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수익 91,000원에서 비용 38,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53,000원**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이고 금융자산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당기손익에서 제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당기에 인식한 수익과 이익에서 비용과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료의 금액을 모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항목**을 먼저 구분한다.

수익 합계: 매출액 60,000원, 임대료수익 1,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원을 합산한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어도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수익 합계는 60,000 + 1,000 + 30,000 = 91,000원이다.

비용 합계: 매출원가 20,000원, 급여 10,000원, 감가상각비 6,000원, 대손상각비 2,000원을 합산한다.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도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하는 비용**이다. 비용 합계는 20,000 + 10,000 + 6,000 + 2,000 = 38,000원이다.

자산·부채 항목 제외: 선급비용 3,000원은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이고, 선수수익 6,000원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부채이다. 미지급급여 500원은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이므로 제시된 급여에 별도 비용으로 더하지 않는다. 미지급배당금 1,000원도 부채이며, 배당은 이익의 분배이므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거래·기타포괄손익 제외: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이므로 당기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5,000원은 자료에 명시된 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므로 당기비용에서 제외한다.

당기순이익: 91,000 − 38,000 = 53,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자산의 감가상각 및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에 대해 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④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던 기계장치가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일정하게 배분하므로, **단순히 사용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해 **원가가 유의적인 구성 부분은 별도로 감가상각**한다. 주요 구성 부분마다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부분에 적합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② O: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추정한 사용기간이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종전 추정과 달라졌다면 상각기간이나 방법을 변경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③ O: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원가를 배분할 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가치의 하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에도 손상검사를 한다.

④ X: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일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상태라도 시간은 경과하므로, **유휴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감가상각비를 계속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자산이 제거된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NoteBase